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17.(일) 11:00, 배포 2023. 12. 15.(금) 오후
(지면) 2023. 12. 18.(월) 조간

해수부·중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합동 점검

-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점검 및 소상공인 의견 청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월) 오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2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 「전통시장법」 상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 확대 현황 : 노량진도매시장(8.4),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9.7), 가락도매시장(9.12)

조 장관과 이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627)
	중소기업벤처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장수환 (044-204-7893)

